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적 아동죽음교육

김현경(성균관대 아동학과 박사과정)(대2-1)

현은자(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김민정(성균관대 아동학과 박사과정)

조메리(성균관대 아동학과 박사과정)

논문초록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며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기에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죽음교육의 논의에서 아동은 거의 제외되어 왔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 관련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친숙한 매체인 그림책을 활용하여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실재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죽음 교육의 목적을 고찰하여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목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죽음을 다루는 현대의 그림책들을 분석하여 그림책이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죽음교육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들은 분석한 그림책 중 『이럴 수 있는 거야?!』(2005)와 『사탕』(2002)을 선택하여 8~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구상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구안한 교육계획을 실시하지 못하여 그 반응이나 효과를 탐색해보지는 못하였으며, 제한된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관련된 한정된 주제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죽음에 대한 세계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죽음교육에 접근했다는 점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현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그림책을 활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실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죽음, 죽음 교육, 그림책

1. 서론

교육의 목적은 온전한 삶¹⁾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교육의 내용적 범위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해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아이들이 온전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죽음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교육은 곧 삶에 대한 교육이다.

삶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고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방수동, 2006) 우리나라에서도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고 1973년 덕성여대에서의 강의를 시작으로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 된 교육의 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은 대부분 성인 혹은 죽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에 기여하였고, 아동을 염두에 둔 죽음에 대한 연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발달적 변화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권성자, 1984; 권혜진, 1980, 김남주, 1984; 김상희, 1986; 서현아, 1998; 양진희, 2006; 이정희, 2007; 정경숙, 1998; 정은미, 1999 등) 이들 연구는 죽음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와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실재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는 드물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모나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의 장면에서 죽음을 다루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죽음을 보여주거나 아동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전통적 생활양식의 변화로 아동의 부모님 역시 죽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그에 대해 구체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현경 외, 2008; 김홍연, 2007)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날씨를 가늠하여 우산을 준비하는 사소한 부분부터 윤희의 고리에서 인간으로의 환생을 기원하는 선행까지) 죽음은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은 아동이 온전한 삶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임과 동시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죽음교육은 아동들이 죽음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갖게 되는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고(조메리명희, 2009), 직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죽음에 잘 적응할 수

1) 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게 설명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교육받은 사람의 발전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온전한 삶'은 그러한 발전적인 변화의 양상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있도록 돕는다(Furman, 1974; Essa&Murray, 1994).

본 연구는 이러한 죽음 교육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친숙한 매체인 그림책을 활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죽음 교육에 접근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죽음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살펴 8~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림책들 중 그림책으로서의 훌륭한 가치를 지녀 아동들의 문학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교육활동계획안을 제시하였다.

2. 기독교적 죽음교육에의 접근

(1) 기독교적 죽음 이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 세상이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 세상이 보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다윈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절대적인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으로 여겨진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을 긍정하고 서로의 세계관을 존중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는 그대로 교육의 내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 눈에는 빨갛게 보여도 다른 사람은 파랗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교육의 내용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도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진리를 소유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한 안경을 제공한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을 구안해야 하는 이유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삶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함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세계관을 조망할 필요는 더욱 절실해진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죽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흠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원하신다면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생존을 위해 비굴해지지 않고 삶의 고귀함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이 죄의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때의 죽음은 육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영혼의 죽음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

간 존재의 죽음을 이른다. 인간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되었다. 인간이 매여 있던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신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신 것은 기독교적 죽음관의 독특한 점이다. 모든 종교는 죽음과 내세를 말하지만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온전한 부활을 약속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로 천국을 보여준다.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로 인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 주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분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의 죽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일상의 삶에서 치열할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제시하는 죽음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다.

(2)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목적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의 커다란 반응은 첫째,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어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지적 반응과 둘째, 죽음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잘못된 정보 혹은 죽음의 세계를 경험해본 이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죽음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와 같은 정서적 반응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죽음교육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축소 혹은 제거하는 것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응용 심리학적 접근과 순수 심리학적 접근의 영향으로 죽음교육의 목적은 개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죽음 관련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개선시킴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Knott, 1979; Corr, 2000), 장례 산업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인식이나 전쟁, 자살과 같이 사회적·문화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조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Leviton, 1977; Deeken, 1986b) 확장되었다.

이처럼,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목적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성찰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는 죽음 관련 문화를 개선하고 전쟁 방지 등 사회 개선을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이정, 2003).

한편, 조메리명희(2009)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효과를 논하면서 죽음교육의 목적을 아동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이 일상에서 죽음과 관련한 사건을 접하였

을 때 이에 잘 적응하고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목적,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키우도록 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유아의 죽음교육 목표를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앞서 정리한 일반적인 죽음교육의 목표 세 가지와 부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교육의 목적은 ‘죽음학’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적인 죽음교육 분야에서 다루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죽음교육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기에 기독교적 죽음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첫째, 인간의 유한성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죽음이 죄의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선물 받았음을 이해하는 것이며, 셋째, 상실과 분리의 아픔을 천국에의 소망으로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김난예(1985)는 아동에게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되, 그 이후의 생활 즉 죽음을 통해 들어서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의 기쁨을 강조하여 슬픔의 마음에 소망의 위로가 덧입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은 두려움과 공포심이 앞서는 죽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의 소망을 통해 다시 하루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홍연(2007)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 부활 신앙과 천국에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죽음에 대하여 아동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죽음의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손원영(2004)은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접근 유형을 카테케시스 접근, 현상학적 접근, 프락시스 접근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죽음교육의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해석학적 프락시스’를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앞에 서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해방적 프락시스’를 교육 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및 죄의 결과로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이끄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적 하에 낙태 예방 교육이나 자살 예방 교육, 전쟁 거부운동과 같은 내용이 다루질 수 있다. 셋째,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들의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영성적 프락시스’를 교육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죽음교육이 인격의 완성 곧 영적 성숙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원영(2004)은 아동이 아직 완전히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형성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고려하여, 죽음에 대한

교리적 지식 중심의 교육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고, 그 대신 학습자들이 죽음과 관련된 예배나 신앙공동체의 다양한 예전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방수동(2006)은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목적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적 죽음교육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갖는 자기 성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 기독교적인 죽음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다양한 죽음의 이해, 죽어가는 과정 등 죽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죽음을 다루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다섯째,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며, 여섯째,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우리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죽음교육을 고찰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김난예(1985)와 김홍연(2007)이 주로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목적을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제한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반면, 손원영(2004)과 방수동(2006)은 행동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 죽음교육의 목적 설정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인지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일반적·의학적인 죽음의 개념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정서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행동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죽음의 과정에 연관되어 있어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성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적 차원: 일반적·의학적인 죽음 개념 이해, 기독교적인 죽음의 의미 이해

정서적 차원: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의 변화

행동적 차원: 죽음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 비탄에 잠긴 이웃을 위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적 삶 영위,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로부터 해방

3. 그림책을 통한 죽음교육에의 접근

(1) 죽음교육에서 그림책이 갖는 의미

아동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당혹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 있다. 죽음

이라는 주제는 성인에게도 무겁고 어려운 것이어서 자신이 먼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에게 죽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죽음은 본질적으로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일반화된 경험을 토대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며, 직접 체험을 통한 학습의 유용성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교사와 아동, 양육자와 아동, 아동과 아동이 공유하는 것에 무게를 두게 된다.

문학작품 특히 그림책은 이러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다(장혜순, 2007). 그림책은 생애 최초로 접하는 주요한 매체로서 아동에게 친숙하며 그 속에는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삶의 온갖 기쁨, 슬픔, 희망, 용기, 두려움 등이 녹아있어, 아동은 좋은 그림책을 경험함으로써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지은주 외, 2006). 또한 그림책은 유아들의 공감과 흥미를 쉽게 유발시키고, 유아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적,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특성이 있다(강은진·현은자, 1998). 따라서 아동은 그림책에 대한 친숙성과 그에 대한 흥미 덕분에 죽음이라는 내용에 쉽게 다가설 수 있으며 죽음을 다룬 그림책을 읽으며 죽음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그 속에 담긴 정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그림책의 미학적인 특성과 이미지, 상상력의 힘 역시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의 유용성을 뒷받침한다. 그림책 연구 분야의 학자들이 주목하는 바와 같이, 그림책에는 감정이나 추상적인 기억들 혹은 은유적인 관련성들에 대해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설명과 의미가 서로 망을 짜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Manifold & Cohee, 2007). 즉, 그림책은 독자의 상상력과 더불어 이미지, 시각적 언어적 리듬, 메타포, 단순한 내러티브 등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미학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Manifold & Cohee, 2007). 그 결과, 그림책을 통한 죽음의 경험은 아동이 죽음에 대한 의미의 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죽음이 내포하는 슬픔에 대해 미학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인지적 발달과 상상력에 기반한 미학적 반응은 죽음에 대한 정서를 느끼는 자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죽음 개념의 형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죽음교육을 실시했던 선행연구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이 아동의 죽음개념 형성과 죽음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한다(양진희, 2007; 조메리명희, 2009).

슬픔이나 아픔, 이별에 대한 감정과 정서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다. 아동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성인의 바람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마주친 아동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슬프고 아픈, 어려운 주제들을 이미지와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책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갖는다면, 아동들은 좀 더 건강하게 그러한 감정을 접하고 다루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2)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교육의 의미

그림책은 아동에게 좋은 문학작품이면서, 동시에 아동의 삶을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매체이다.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는 그동안 그림책에서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는데²⁾, 이 역시 그림책이라는 매체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반영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그림책의 주제나 소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Fly away home』과 같이 노숙 환경의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책이 있는가 하면, 『My daddy's roommate』와 같이 동성애를 다루는 그림책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책의 주제와 소재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죽음을 주제로 한 그림책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에서 출판된 죽음 주제의 그림책은 현재 70여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중 90% 이상이 2000년 이후에 출간되었다(조메리명희, 2009).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독교적 죽음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기독교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그림책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내는 그림책을 찾기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교육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디언의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 『그리운 할아버지』(1992)나 『천의 바람이 되어』(2004)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바람’이 되는 것으로 그려져 인간이 죽음 이후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너는 아기 때 대머리였대』(2000), 『지구별에 온 손님』(1987), 『100만 번 산 고양이』(1977)와 같은 그림책들은 생명의 가치를 심각하게 고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생물로 환생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명백히 기독교적 세계관에 반하는 그림책이지만, 기독교적 죽음교육에 활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교사는 아동과 함께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이러한 토론은 아동들이 죽음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과 그림책에 그려진 세계관을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그림책을 읽는 적극적 독자로서 아동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정리한 죽음교육의 목적에 기반하여 죽음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이 죽음교육의 목적에 맞추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일반적·과학적인 죽음의 개념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가역성, 비가능성, 필연성을 아우르는 죽음의 개념을 그림책을 통해 다룰 수 있다. 정보 그

2) Manifold & Cohee(2007)에 따르면, 성인들은 아동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에 의해 쉽게 상처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질병이나 죽음, 분리와 같은 주제가 그림책에서 금기시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림책이 아니라면 이러한 죽음의 개념 전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림책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죽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그림책은 부분적으로 죽음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굿바이 마우지』(2001)는 친밀한 애완용 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겪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과 이별의 의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죽음의 개념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완용 쥐인 마우지의 배를 살살 간질여보지만 마우지는 깨지 않는다. 다시 턱을 간질여 보지만 역시 마우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마우지가 어디 아픈가보다고 말하는 ‘나’에게 아빠는 “너무 슬프지만... 마우지는... 죽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같이 놀았던 마우지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죽음의 비가능성의 측면에 ‘나’는 화가 나지만, 곧 슬프다는 감정을 고백한다. 그리고 왜 마우지가 죽었는지 궁금해 한다. 아빠는 마우지가 나이 많은 쥐였다고 설명해 준다. ‘나’는 마우지를 마당에 물어준 후 마우지를 추억하면서 마우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비가역성)을 알고 있다고 독백한다. 이처럼 친밀한 존재의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에 죽음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이 죽음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림책 읽기를 통해 죽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일반적인 죽음교육의 목적에 더해 죽음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까지를 기대한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영생,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에의 소망 등의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 『사탕』(2002)은 천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림책의 좋은 예이다. 이 그림책은 요리스와 오스카가 공원에서 만나 사탕을 나눠먹으면서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천국이 있을지, 그곳에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주인공은 마치 일상에서 수다를 떨 듯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천국의 이미지를 구체화 해 간다. 여기에서 죽음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동들은 이 책을 통해 주인공들의 대화를 따라가며 주인공과 함께 죽음 이후의 세계와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기회를 통해 아동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슬프고 나쁜 무언가’라고 단순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죽음 이후의 세계로까지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탐색은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삶으로 돌아와 현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죽음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정서적 차원의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홍연(2007)은 오늘날 죽음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고, 가족

이 아닌 장례전문가에 의해 ‘처리’되면서 삶과 죽음이 별개로 나누어지는 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이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고, 가족이 아니라 장례전문가에 의해 ‘처리’되면서, 죽음이 삶과 분리되어 대상화 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동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림책의 예로 『내가 함께 있을게』(2007)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2006) 등을 들 수 있다. 『내가 함께 있을게』(2007)의 주인공 오리는 그림책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목을 길쭉이 빼고서 두리번거리다 놀랍게도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오리를 지금 당장 데리러 온 것이 아니며 늘 오리의 곁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오리에게 그렇듯 우리의 삶에도 죽음은 함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친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림책 속 ‘죽음’의 얼굴이 해골로 그려진 것과 같이, 오싹함과 두려움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죽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책 속에서 그림이 묘사하는 ‘죽음’의 모습은 비록 해골이기는 하지만 빨간 체크무늬 원피스를 속에 입고, 파란 체크무늬의 코트를 걸치고서 살며시 미소를 띠고 있으며, 더구나 붉은 튜립 한 송이도 등 뒤에 숨기고 있어 ‘다른’ 느낌을 준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오리를 대하는 태도도 인상적이다. ‘죽음’은 존재를 압도하지 않는다. ‘죽음’은 오리를 배려하며 진심과 성의 어린 태도로 공존하고 심지어 장난기를 보이기도 한다. 이 책을 읽는 아동들은 이런 ‘죽음’을 만나면서 죽음이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2006)은 어느 무료한 여름 날 오후, 에스테르와 내가 우연히 죽은 말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을 통해 죽은 동물들을 돕기로 하면서 시작된다. 에스테르와 에스테르의 동생인 푸테, 그리고 나는 친구의 햄스터, 쥐뿔에 잡힌 쥐 등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을 치러준다. ‘나’는 장례에 쓰이는 시를 쓰는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해 시로서 죽은 동물들을 애도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기겁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에스테르가 건네주는 죽은 동물들을 손으로 받지는 못한다. 그러던 중, 우리는 우연히 마지막 고객인 ‘지빠귀’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처음으로 죽은 동물이 아니라 ‘죽음’을 목격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이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두려움을 완전히 잊고 죽은 새를 들어올리는 ‘나’의 모습은 죽음이 두려워하거나 피해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죽음이 꽤 괜찮은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리처럼, 혹은 삶과 죽음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죽은 동물을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나’와 같이, 그림책을 보는 아동들도 죽음을 삶에서 분리시키려 했던 태도를 조정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에서 기독교적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죽음의 과정에 연관되어 있어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성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박현경·윤현민(2008)은 죽음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에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1993)는 그림책의 내용에 앞서 그림책 자체로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 책은 실제로 동생의 죽음을 경험한 다섯 살 반의 아이가 4주의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만든 작품으로 아이는 이야기를 만들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받아 적은 후 그림을 그렸다. 그림책의 완성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아동이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아동이 그림책을 만드는 것으로 동생을 잃은 자신의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은 것이다.

『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1993)에서 프레드는 갑자기 동생 조를 잃게 된다. 슬픔에 빠진 프레드와 가족을 위해 두더지 가족은 조를 묻을 아름다운 곳의 땅을 파고, 비버는 온 힘을 다해 좋은 관을 만들며, 고슴도치 할아버지는 프레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웃들은 장례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레드 가족들이 조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례식 이후에도 이웃들은 프레드의 가족들을 돕고 싶어 하는데, 특히 요리를 잘하는 아빠돼지가 프레드네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기도 한다. 이때, 글의 화자는 프레드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돼지네 집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다.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동들은 가족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겨내는 데에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1993)가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 극복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2005)는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좀 더 무게를 두어 그림책을 읽는 아동들이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럴 수 있는 거야?!』(2005)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한편, 전쟁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이슈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방수동(2006)은 이 세상에 전쟁이나 생태계 파괴, 다양한 형태의 억압, 착취들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죽음의 위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여러 목적 중 하나라고 말한다. 『보스니아의 성냥팔이 소녀』(1999)는 안테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를 원작으로 하는 재화 그림책

으로 글은 안데르센의 원작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지만, 그림책의 그림은 실제 전쟁 사진을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성냥팔이 소녀는 안데르센 동화 속의 소녀가 아니라 보스니아 내전을 겪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이다. 원작에서 성냥팔이 소녀의 죽음은 타자에게 어떻게 읽히든 소녀에게는 비극이라고만 할 수 없는 미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원작의 글 아래 종군기자가 쓴 책의 일부가 한 문장씩 첨가되어 있는 이 그림책에서 소녀의 죽음은 전쟁이라는 비참한 죽음의 현장에 대한 고발로 읽힌다. 이 그림책을 통해 삶의 고귀함 뿐 아니라 죽음의 품위까지도 파괴하는 시대에 대해 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기독교적 죽음교육을 위한 계획안 구성의 원리

(1) 교육의 개요

① 교육 대상

아동을 위한 죽음 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학자들은 아동이 물활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을 갖추게 되어 죽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가능한 시기를 8~9세로 꼽는다(김홍연, 2007; 손원영). 동시에 이 시기의 아동들은 죽음 개념 발달에 있어서는 정체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정경숙, 1986). 즉, 8~9세경에는 죽음에 대한 인지적인 발달을 보일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죽음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교육 내용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적정 연령으로 볼 수 있다.

방수동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심한 부담과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방수동, 2006). 움직이는 구름은 살아있고 가만히 있는 식물은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적 사고 단계의 아동과 죽음에 대해 논의할 경우 죽음을 구체적인 사물로 치환하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일상을 통해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므로 죽음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또, 10세 이상 연령의 아동들은 대체로 죽음의 보편성, 비가역성, 비역행성 등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변상해 외, 2009)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죽음 개념 보다는 죽음 불안이나 죽음에 대한 태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8~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은 인지적인 내용과 정서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므로 그 보다 어린 아이들이나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게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8~9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② 교육 환경

방수동(2006:9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의 환경은 기독교교육이 실천되는 공간적 현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은 가정과 학교, 교회와 다양한 신앙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중요한 교육의 현장으로 간주하여 왔다.” 특히,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교육 내용의 선택에 있어 기타 교육 기관에 비해 자율성이 허락되어 죽음 교육에 대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계획안의 교육기관을 학교가 아닌 교회로 설정하였다.

한편 집단의 구성에 있어, 방수동(2006)은 죽음교육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촉진을 위해 집단의 크기는 10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대상 연령과 그림책 읽기 상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소집단 즉, 4-6명 내외로 집단의 크기를 정하였다.

교육 시간은 ‘그림책 읽기 활동’을 가장 중심으로 하고, 읽기 전과 읽기 후 단계를 포함하여 총 90분으로 계획하였다. 이때, 90분은 아동의 주의집중이 지속되기에는 긴 시간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의 교육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연령이 어린 아동이라 할 지라도 면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림책 읽기에는 30-40분 정도의 넉넉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읽기 전 활동과 읽기 후 활동을 포함하여 90분 이상 진행되는 수업에도 아동들의 주의집중력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시간을 90분으로 설정하였다.

③ 그림책 선정

아동문학의 의미와 가치는 문학의 고유성에서 찾을 수 있다(현은자, 2003). 아동이 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 상상력의 발달 등은 문학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작품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위한 유익보다도 문학의 우수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좋은 아동문학작품은 작품으로서의 문학과 예술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유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그림책을 탐색하기보다는 좋은 문학으로 여겨지는 죽음 주제의 그림책들을 폭넓게 탐색하였다.⁴⁾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Manifold & Cohee(2007)가 다음과 같이 제안한 좋은 그림책의 기준을 참고하여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 보편적인 질문을 품위 있게 다루는 책
- 답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취하는 책
- 답에 대한 절대성이나 확실성을 피하고, 독자의 상상적 해석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책

3) 현은자(2003)는 교육기관에서 문학이 학습 보조를 위한 읽을거리로 사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문학은 문학 나름대로의 고유 영역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4) 죽음을 다룬 그림책의 목록은 박현경·윤현민(2008)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 내러티브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심상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책

이렇게 선정된 그림책 중에서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과 기독교 죽음교육의 목적 및 하위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거야?!』(2005)와 『사당』(2002)을 선택하였다.

(2) 교수-학습 방법

① 그림책 읽기 전략

문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 즉, 읽기 전 준비 단계와 읽기 단계, 읽기 후 확장단계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현은자 외, 2007).

먼저, ‘읽기 전 준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으로 하여금 ‘그림책 읽기’가 즐거운 일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책 읽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읽기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소품 혹은 상황을 제시하여주는 것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읽기 단계’에서 아동과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교사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 모두에 주목한 통합적 읽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림책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정보가 전달되고,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아동이 그림책을 충분히 즐기고 그림책으로부터 다양한 생각의 물꼬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 질문’과 그림책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적용 질문’, 그리고 그림책의 내용에서 시작하여 창의적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창의 질문’ 등은 그림책 읽기의 과정을 돕는 질문 전략들이다. 그림책을 읽으며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은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 사이의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토론은 아동이 그림책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그림책에 담긴 세계관에 대해 다룰 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확장단계’는 그림책의 주제와 연결하여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그림책의 재미를 더하여주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 후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활동이 책의 여운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전 단계의 내용과 상관없는 ‘활동을 위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읽기 후 활동의 예로는 그림책에 대한 토론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뒷이야기 짓기,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책 만들기 등이 구성될 수 있다.

② 교사의 역할

그림책을 활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죽음을 교육하는 교사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과 죽음(교육) 그리고 그림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죽음은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이므로 죽음을 교육하는 교사는 정서적으로 매우 건강하여 '죽음'에 대해 적절하게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음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죽음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아이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따뜻함과 냉정함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안정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죽음에 관해 아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는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죽음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또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림책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아이들과 나눌 이야기를 추출하는 데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죽음을 다룬 그림책들 중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책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다른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을 활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죽음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림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죽음을 교육하는 교사는 죽음과 죽음교육에 대해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죽음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지 못했거나 폭넓은 지식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교육 내용을 선택, 조직할 수 없으며, 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 아동의 나이와 생활환경, 지역 등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대상에 적합한 죽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아동의 죽음 개념 발달을 포함한 죽음교육 관련 영역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그림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감식안이 있어야 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익숙해야 한다. 교사가 그림책을 주제 전달의 도구로만 활용한다면 아이들은 그림책의 뛰어난 문학과 교육성을 충분히 느낄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림책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끄는 좋은 교재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문학 경험을 확장하여 문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며 상상력을 자극하여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돕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이다. 교사가 그림책을 풍부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아동과 나눌 수 있는가가 수업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5. 기독교적 죽음교육 계획안의 실제

(1) 『이럴 수 있는 거야?!』를 통한 기독교적 죽음교육 계획안

① 그림책 소개

	원 제목	『GEHÖRT DAS SO?!』
	작가명	페터 웨소우 글·그림(2005)
	번역제목	『이럴 수 있는 거야?!』
	번역정보	한미희 역(2007), 비룡소, 1판 1쇄: 2007년 1월 5일

공원에 이상한 여자애가 나타났다. 여자애는 커다란 빨간색 가방을 질질 끌면서 악을 쓰듯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럴 수 있는 거야?!' 여자애는 계속해서 가방을 끌고 다니며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댄다. 궁금해진 '우리'는 여자애 뒤를 따라가 용기를 내어 물어본다. '너, 왜 그러니?' 그러자 엘비스가 죽었다고 말한다. 모두들 그 엘비스가 오래 전에 죽은 미국의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그러자 아이는 가방을 열고 엉엉 울며 죽어있는 노란 새, 자신의 엘비스를 보여준다. '우리'는 슬픔을 표시하고 함께 엘비스를 땅에 묻어준 후 여자 애가 들려주는 엘비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눈 후 그 새가 하늘에서 같은 이름의 엘비스를 만나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슬펐지만 빙그레 웃으며 헤어진다.

『이럴 수 있는 거야?!』는 죽음과 상실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분노에 가득 찬 여자 아이는 '이럴 수 있는 거야?!'를 외치며 이곳저곳을 쏘다닌다.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구하는 것도 아닌 외침이기는 하지만 공원에서도 호수에서도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두 주먹을 꼭 쥐고 악을 쓰는 여자 애를 의아하게 바라볼 뿐이다. 날개 달린 작은 요정, 커다란 가방을 든 작은 친구, 키다리 친구, 개와 곰이 함께 있는 '우리'만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다. 여자 애는 우리의 관심에 반응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간다. 처음에 우리가 왜 그러는 지를 물어보았을 때, 작은 여자 애는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죽어있는 작은 새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는 '엉엉 울면서' 말한다.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는 그저 '엘비스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라고 표현된다. 분노가 점차 사그라지고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과 그에 대한 슬픔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친구들의 공감과 장례 절차를 통한 죽음의 인식(이 부분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라는 글과 함께 여자 아이가 죽은 엘비스가 들어있는 빨간 가방을 꼭 끌어안은 장면으로 제시되어 있다.), 죽은 이를 충분히 추억하는 시간, 죽은 이의 사후

에 대한 기원이 있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엘비스에 대한 추억을 나눌 때까지도 여자 애의 무릎에 붙어 있던 작은 반창고가 빙그레 웃고 헤어지는 순간에는 사라진 것으로 여자 애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뚜렷한 테두리 선으로 그려진 인물들의 모습과 각양각색인 '우리'의 모습은 만화적인 느낌을 주지만 사물마다 부여된 그림자는 그림의 사실성을 부각한다. 이 둘의 조화는 사진 위에 동화 속 인물들을 붙여 놓은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의 무게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만화적 요소는 죽음과 상실, 그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사실적 특징은 만화적 요소가 만든 밝은 분위기가 죽음과 슬픔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다.

이 책을 기독교적인 죽음 교육에 활용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죽음의 수용에 있어서 주변인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작은 여자 애는 우리의 관심과 동참, 공감을 통해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악을 쓸 수 밖에 없었던 분노를 해결하게 된다.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비탄에 잠긴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것이다.(방수동, 2006) 이 책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비탄에 잠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죽음과 비탄의 과정에 대한 인지적 이해이다. 여자 애는 빨간 가방을 묻기 전 가방을 꼭 끌어안는다. 그 장면에서 동반되는 설명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다. 사랑하는 존재와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속성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헤어짐을 위한 인사를 하는 그림은 죽음의 비가역성에 대한 뚜렷한 인지와 감정적 수용의 장면을 가슴 찡하게 전해준다.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 인식하면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불안, 공포 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엘비스를 땅에 묻은 후 과자를 먹고 코코아를 마시며 엘비스를 생각하는 과정,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우는 과정이 차분하고 성실하게 표현되어 있어 장례의 절차를 이해하게 된다.

셋째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다. 죽음을 다룬 그림책에서 죽음 이후의 존재나 사후 세계가 묘사된 부분은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 책에서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과 확연히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천국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단서는 얻을 수 없지만 죽은 자들이 산 자와 다른 공간에 놓이게 되므로 그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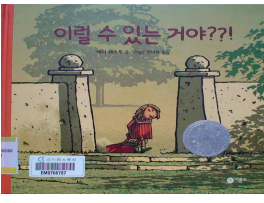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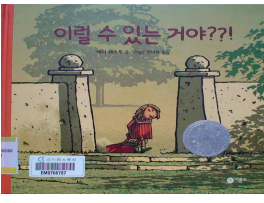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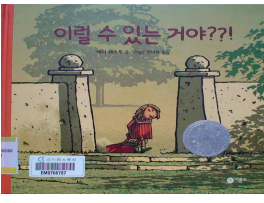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 죽음에 대해 자신이 갖게 되는 슬픔의 반응이 의아한 것이 아니며 주변의 도움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해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② 계획안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죽음 가르치기”


•대상 학년: 초등 1~2학년	•교육 시간: 90분	•일시:
•집단 구성: 소집단 4~6명		•장소: OO 교회

주 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관련성구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교육목적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행동적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죽음의 과정에 연 관되어 있어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안다.	
교육목표	1.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2. 죽음을 수용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의 과정을 이해한다. 3. 죽음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할 수 있다.	
준비물	작은 새 인형, 색종이, 가위, 풀 등 공작 도구, 카드, 필기도구	
그 립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목 : 이럴 수 있는 거야??! • 글 작가 : 페터 쉐소우 • 그림작가 : 페터 쉐소우 • 옮 김 : 한미희 • 출 판 사 : 비룡소 • 출판연도 : 2005년 (2007년 역) • 연 령 : 8~9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거리: 커다란 빨간 가방을 질질 끌면서 공원에 나타난 이상한 여자 애는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악을 쓰듯 소리를 친다. 궁금 해진 우리는 여자 애를 따라가 그 이유를 묻고 작은 새 엘비스가 죽은 슬픔을 함께 나눈다.
교육단계	교육 내용	
1단계 (20분) 책읽기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기도를 드린다. ○ 마음 열기 활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 프레슬리의 동영상을 본다. ○ 관련 성구를 읽고,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는 무슨 뜻일까요? · 위로를 해 주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 어떤 경우에 위로가 필요할까요? · (앞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 ~한 경우에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 어떤 행동이 위로가 되는 행동일까요? ○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왜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할까요? · 이 말씀을 보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교육단계	교육 내용										
<p>2단계 (40분) 책읽기 활동</p>	<p>○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p> <table border="1" data-bbox="406 443 1321 1563"> <thead> <tr> <th data-bbox="406 443 699 477">그림책 장면</th> <th data-bbox="699 443 1321 477">질문 전략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6 477 699 772">  </td> <td data-bbox="699 477 1321 7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 표지 그림에는 무엇이 있죠? · 아이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여자 아이의 표정을 한 번 따라해 보세요. · 어떨 때 그런 표정을 짓나요? · 이 아이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 저 가방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td> </tr> <tr> <td data-bbox="406 772 699 1153">  </td> <td data-bbox="699 772 1321 1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를 땅에 묻는 것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왜 함께 모여 앉았을까요? · 여기에서 엘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앞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계하여)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엘비스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 (앞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계하여) 여자 애는 엘비스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 슬퍼하는 친구나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혹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td> </tr> <tr> <td data-bbox="406 1153 699 1422">  </td> <td data-bbox="699 1153 1321 1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죽은 새 엘비스가 어떻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td> </tr> <tr> <td data-bbox="406 1422 699 1563">  </td> <td data-bbox="699 1422 1321 1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는 왜 이런 면지를 넣었을까요? · 이 면지를 보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 (앞 질문과 연계하여) 우리 엘비스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td> </tr> </tbody> </table>	그림책 장면	질문 전략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 표지 그림에는 무엇이 있죠? · 아이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여자 아이의 표정을 한 번 따라해 보세요. · 어떨 때 그런 표정을 짓나요? · 이 아이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 저 가방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를 땅에 묻는 것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왜 함께 모여 앉았을까요? · 여기에서 엘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앞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계하여)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엘비스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 (앞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계하여) 여자 애는 엘비스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 슬퍼하는 친구나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혹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죽은 새 엘비스가 어떻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는 왜 이런 면지를 넣었을까요? · 이 면지를 보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 (앞 질문과 연계하여) 우리 엘비스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림책 장면	질문 전략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 표지 그림에는 무엇이 있죠? · 아이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여자 아이의 표정을 한 번 따라해 보세요. · 어떨 때 그런 표정을 짓나요? · 이 아이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 저 가방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를 땅에 묻는 것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왜 함께 모여 앉았을까요? · 여기에서 엘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앞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계하여)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엘비스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 (앞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계하여) 여자 애는 엘비스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 슬퍼하는 친구나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혹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죽은 새 엘비스가 어떻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는 왜 이런 면지를 넣었을까요? · 이 면지를 보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 (앞 질문과 연계하여) 우리 엘비스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p>3단계 (20분) 책읽기 후 활동</p>	<p>○ 장례식 준비 활동을 한다. 엘비스의 장례식 준비하기.(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며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워하면 교사가 개입함.)</p> <p>○ 카드 쓰기 활동을 한다. 여자 아이를 위로하는 카드 쓰기.</p>										
<p>4단계 (10분) 마무리</p>	<p>○ 수업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 마무리 기도를 한다.</p>										

(2) 『사탕』을 통한 기독교적 죽음교육 계획안

① 그림책 소개

	원 제목	『drop』
	작가명	실비아 반 오먼 글·그림(2002)
	번역제목	『사탕』
	번역정보	신석순 역(2007), 사과리, 1판 1쇄: 2007년 11월 15일

어느 날, 요리스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온다. 날씨가 참 좋으니, 공원에서 같이 사탕을 먹자는 오스카의 메시지다. 요리스는 오스카에게 마실 것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답문을 보내고서 바로 공원을 향해 출발한다. 그러나 삶이란 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진 않는 법이고,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마련이다. 오스카가 자전거를 타고 썩썩 달리는 동안 요리스는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나 공원에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책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대하여, 또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해준다.

드디어 공원에서 만나게 된 요리스와 오스카는 서로 가져온 여러 색깔의 사탕과 토마토 주스를 나눠 먹는다. 그때, 파란 사탕을 손에 든 오스카는 문득 사탕처럼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 높은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지, 정말 천국이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던데, 정말일지, 둘 다 가게 되는 것인지, 천국에 가서 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또 너무 넓어서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실제로 죽음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품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들이다. 그림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둘러싸고 슬픔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인간의 유한성, 삶의 일회성으로 인하여 ‘삶’이 아닌 ‘죽음’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은 상실과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다시 ‘삶’으로 돌아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그림책의 그림은 요리스와 오스카의 모습을 검은색 펜으로 단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의 뒷 배경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글 역시 딱 한번 제 3의 나레이터가 등장하여 오스카가 자전거를 썩썩 달리는 모습에 대해 언급하여줄 뿐, 다른 곳에서는 요리스와 오스카의 간결한 대화만이 그림책의 글로 제시된다. 이처럼 짧고 단순한 글과 그림의 이미지, 그리고 배경 묘사보다 여백이 많이 사용된 이 그림책의 형태는 죽음 이후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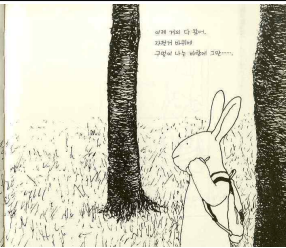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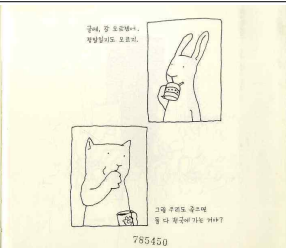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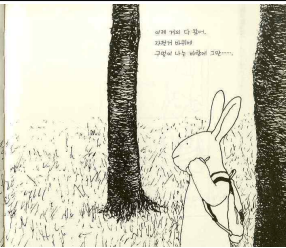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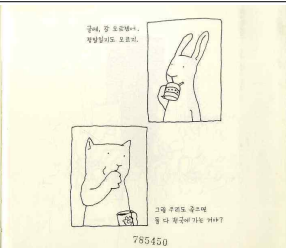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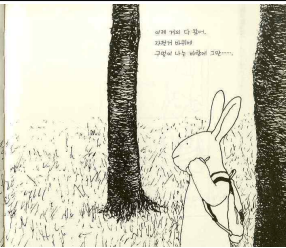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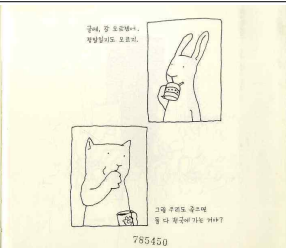
라는 어려운 질문의 무게를 덜어주면서 오스카와 요리스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에 독자들을 더욱 집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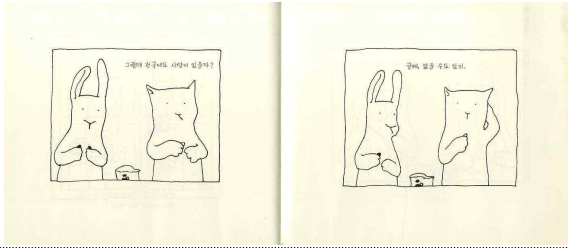
② 계획안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죽음 가르치기”

•대상 학년: 초등 1~2학년 •집단 구성: 소집단 4~6명	•교육 시간: 90분	•일시: •장소: OO 교회
--------------------------------------	-------------	--------------------

주 제	천국에 대한 소망	
관련성구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교육목적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인지적 차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관련지을 수 있다.	
교육목표	1.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2.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 본다. 3.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준비물	사탕,	
그 립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목 : 사탕 • 글 작가 : 실비아 반 오먼 • 그림작가 : 실비아 반 오먼 • 옮 김 : 신석순 • 출 판 사 : 사파리 • 출판연도 : 2002년 (2007년 역) • 연 령 : 8~9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거리: 날씨가 참 좋은 어느 날, 오스카와 요리스는 각자 사탕과 주스를 가지고 공원에서 만나 나눠먹기로 한다. 그런데 파란 사탕을 손에 든 오스카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 높은 하늘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오스카와 요리스는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상상을 통해, 아이다운 시선에서 천국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교육단계	교육 내용	
1단계 (20분) 책읽기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기도를 드린다. ○ 마음 열기 활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한 사탕을 나눠 먹는다) 이 사탕은 어떤 맛인가요? · 사탕처럼 달콤한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 사탕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 관련 성구를 읽고,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원’이란 무슨 뜻일까요?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한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악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것 같나요? ○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교육단계	교육 내용												
2단계 (40분) 책읽기 활동	<p>○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p> <table border="1" data-bbox="406 443 1321 481"> <thead> <tr> <th data-bbox="406 443 705 481">그림책 장면</th> <th data-bbox="705 443 1321 481">질문 전략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6 481 705 721">  </td> <td data-bbox="705 481 1321 721"> <표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을 보니 무엇에 관한 그림책일 것 같나요? · ‘사탕’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배경색같은 무슨 색인가요? · 하늘색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작가는 왜 파란색을 썼을 것 같아요? </td> </tr> <tr> <td data-bbox="406 721 705 967">  </td> <td data-bbox="705 721 1321 967">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06 967 1321 1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스는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날 것을 알고 있었나요? · 여러분도 이렇게 자전거 바퀴에 갑자기 구멍이 났던 적이 있나요? · 꼭 자전거 바퀴가 아니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나요? ·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td> </tr> <tr> <td data-bbox="406 1153 705 1400">  </td> <td data-bbox="705 1153 1321 1400">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06 1400 1321 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천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약, 하늘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 천국엔 언제 가지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 죽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 천국이 없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천국이 있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있어서 갈 수 있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td> </tr> </tbody> </table>	그림책 장면	질문 전략의 예		<표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을 보니 무엇에 관한 그림책일 것 같나요? · ‘사탕’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배경색같은 무슨 색인가요? · 하늘색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작가는 왜 파란색을 썼을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스는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날 것을 알고 있었나요? · 여러분도 이렇게 자전거 바퀴에 갑자기 구멍이 났던 적이 있나요? · 꼭 자전거 바퀴가 아니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나요? ·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천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약, 하늘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 천국엔 언제 가지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 죽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 천국이 없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천국이 있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있어서 갈 수 있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림책 장면	질문 전략의 예												
	<표지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을 보니 무엇에 관한 그림책일 것 같나요? · ‘사탕’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배경색같은 무슨 색인가요? · 하늘색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작가는 왜 파란색을 썼을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스는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날 것을 알고 있었나요? · 여러분도 이렇게 자전거 바퀴에 갑자기 구멍이 났던 적이 있나요? · 꼭 자전거 바퀴가 아니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나요? ·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천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약, 하늘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 천국엔 언제 가지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 죽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 천국이 없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천국이 있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있어서 갈 수 있다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교육단계	교육 내용
<p>2단계 (40분) 책읽기 활동</p>	<p>[표계속]</p>  <p>· 천국과 사탕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를까요? · 천국에도 사탕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천국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천국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천국에 없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p>
<p>3단계 (20분) 책읽기 후 활동</p>	<p>○ 요리스와 오스카의 인형을 만들어 역할극을 한다. 도화지에 요리스와 오스카를 그리고, 그것을 오려 빨대나 나무젓가락에 붙여 요리스와 오스카 인형 만들기. 요리스와 오스카처럼 천국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여 인형을 움직이며 발표하기.</p>
<p>4단계 (10분) 마무리</p>	<p>○ 수업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 마무리 기도를 한다.</p>

5. 결론 및 제언

죽음교육은 더 이상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도, 아동에게 금기시되어야 하는 주제도 아니다. 아울러 아동을 위한 죽음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될 수 있으며, 특히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이에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적 죽음교육을 실시할 구체적인 교육활동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탐색한 후, 이에 맞는 그림책을 교육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노년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이 주를 이루는 오늘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구체적인 실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그림책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어린 아동에게도 접근 가능한 교육의 실재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죽음이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다루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목표에 맞는 계획안을 실제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보지 못했다는 점과, 죽음 관련 주제들을 모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죽음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연령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발달적 특성을 지닌 아동들에 적합한 교육 계획안을 폭넓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제안한 교육계획안이 실제로 아동의 기독교적 죽음 이해와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영역들을 고루 탐색하여 교육의 목표를 세밀하게 조직하여 제안하고, 죽음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림책을 활용하여 기독교적 죽음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생산해 가야 한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진·현은자(1998). "환상동화와 사실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19(1), 169-182.
- 권성자(1984).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혜진(1980).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난예(1985). "교회교육 지도자들을 위한 전문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들려 줄까". 『교육교회』, 111권.
- 김남식(1993). "소망과 완전예의 미학: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상담과선교』, 6-33.
- 김남주(1984). "아동의 죽음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상희(1986).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도 및 부모와 교사의 의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홍연(2007). "죽음과 기독교교육: 죽음을 통한 삶의 의미를 교육하기". 『신학과목회』, 28집, 1-27.
- 박현경·윤현민(2008). "그림책 속에 나타난 죽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9(2), 25-49.
- 방수동(2006). "기독교적 죽음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변상해·이판근(2009).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 형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8(1), 211-223.
- 서현아(1998). "연령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19(1), 97-110.
- 서현아·김소연(2002). "그림책과 관련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9(2), 1-33.
- 손원영(2004). "기독교적 죽음 교육의 연구 유형과 새 방향".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7권, 233-274.
- 양진희(2006). "유아의 죽음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7(3), pp. 1-27.
- 오영희·우수경·전호숙(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정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연구』, 24(5), 269-290.
- 윤현민·박현경(2009). "아동의 죽음인식 및 죽음 관련 경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4), 241-256.
- 이성은(2003). 『아동문학교육』, 교육과학사.
- 이영석(2002). 『유아교육론』, 형설출판사.
- 이영자·이종숙·신은숙(2005). "유아의 정서지능, 마음이론,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집단게임놀이 효과". 『유아교육연구』, 25(3), 119-147.
- 이이정(2003).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정희(2007). "아동의 죽음개념 발달과 죽음대비교육". 『목포과학대학논문집』, 31집, 341-368.

- 정경숙(1986).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획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6권, 51-69.
- (1998). "발달 수준에 따른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논문집』, 12집, 267-292.
- 장혜순(2007). 『유아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 정은미(1999). "종교와 죽음경험 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메리명희(2009).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교육이 유아의 죽음 개념 및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지은주·유승희·김선옥·양순경·윤정빈(2006). "유아가 가정에서 읽는 그림책에 나타난 마음상태 표현: 그림책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3). 223-242.
- 한운경(2007).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위한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3). 295-316.
- 현은자(2000). "그림책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신앙과 학문』, 5(2), 99-124.
- 현은자(2003).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학지사.
- 현은자 외(2007). 『그림책과 예술교육』. 학지사.
- Manifold & Cohee(2007). "The Healing Picture book: an aesthetic of Sorrow". 『Librarian』. 34(3).
- Turner, Joan C.(2006). "Representations of Illness, Injury, and Health in Children's Picture books". 『Children's Health Care』. 35(2). 179-189.

그림책 목록

- 로비 H. 해리스 글, 잔 오머로드 그림. (2001). 햇살과나무꾼 역(2002). 『굿바이 마우지』. 사파리.
- 화이트디어 오브오텀 글, 캐롤 그리그 그림. (1992). 송신화 역(2005). 『그리운 할아버지』. 파란자전거.
- 볼프 예를브루흐 글, 그림. (2007). 김경연 역(2007). 『내가 함께 있을게』. 웅진주니어.
-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글, 조르주 르무안 그림. (1999). 최내경 역(2006). 『보스니아의 성냥팔이 소녀』. 마루별.
- 실비아 반 오먼 글, 그림. (2002). 신석순 역(2007). 『사탕』. 사파리.
- 울프 닐슨 글, 에바 에릭손 그림. (2006). 임정희 역(2008).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시공주니어.
- 페터 웨소우 글, 그림. (2005). 한미희 역(2007). 『이럴 수 있는 거야?!』. 비룡소.
- 유리 브레이바르트 글, 피트 브레이바르트 그림. (1993). 김현희 역(2002). 『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 느림보.
- 아라이 만 글, 사타케 미호 그림. (2004). 노경실 역(2005). 『천의 바람이 되어』. 새터.
- Eve Bunting & Ronald Himler(1991). Fly away home. Houghton Mifflin Company.
- Michael Willhoite(1994). My daddy's roommate. Alyson Books.

Christian Death Education for Children Using Picture Books

Kim, Hyeon-Kyeong (Sungkyunkwan University)

Hyun, Eunja (Sungkyunkwan University)

Kim, Minjung (Sungkyunkwan University)

Jo, Marymyungh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preliminary study to design the Christian death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based on picture books. For this purpose, the objective of Christian death education was explored considering the children's three developmental domains: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domain. Two picture books with main theme of 'death' such as 『GEHÖRT DAS SO?!!』 and 『Drop』 were reviewed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to be used as the resource material to design the death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was suggested that the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the Christian death education program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through field and experimental study in Christian education settings such as a church and a Christian school.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death, death education, picturebooks